



하이팅!

“이승훈, 어깨 활짝 펴”

스피드 스케이팅 5000m 12위...女 스키 등 성적 저조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길 것으로 기대를 모은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의 간판스타 이승훈(한국체대)은 8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의 아틀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에서 6분25초61이라는 기대 이하의 기록으로 12위에 머물렀다.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대회 5000m에서 6분16초95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어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종목의 메달리스트가 됐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 13초에서 레이스를 펼친 이승훈은 '세계 최강' 스벤 크라머(6분10초76)를 비롯해 안 블로크 후이센(6분15초71), 요리트 베르그스마(6분16초66) 등 금·은·동메달을 싹쓸이한 네덜란드 선수들의 기세에 눌린 듯 전혀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승훈은 오는 18일 밴쿠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1만m 경기에 출전한다.

기대주 김철민(한국체대)은 6분37초28에 레이스를 마쳐 26명의 선수중 24위에 처졌다.

한국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간판 이재원(경기도 체육회)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재원은 라우라 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여자 7.5km+7.5km 스키애슬론(추적) 경기에서 44분17초2의 기록으로 61명 중 54위에 자리했다.

남자 바이애슬론 이인복(전남체육회)은 10km 스프린트에서 28분35초9의 성적으로 87명중 82위에 머물렀다.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모굴 종목에 나선 서정화와 서지원(이상 GKL)은 예선에서 14위, 13위에 그쳐 결선 티켓을 얻지 못했다.

한편 대회 첫 금메달은 처음 올림픽 정식종목이 된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 결선에서 93.50점을 받은 세이지 코헨버그(미국)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모태범, 첫 금 부탁해”

오늘밤 10시 스피드 스케이팅 500m 2연패 도전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메달 레이스 사흘째인 10일(이하 한국시간), 한국의 겨울올림픽 금맥인 빙상 종목의 주축 선수들이 잇따라 무대에 오른다.

이날 밤 10시부터 아틀레르 아레나에서는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경기가 열린다.

이 경기에는 디펜딩 챔피언 모태범(대한항공)이 출전한다.

모태범은 4년전 밴쿠버 대회 500m에서 우승을 차지해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의 금메달은 밴쿠버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이 거뒀던 첫 금메달이기도 했다.

올 시즌 초반 다소 주춤했던 모태범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월드컵 4차 대회에서 500m와 1000m 모두 정상에 올라 올림픽 2연패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렸다.

소치올림픽 남자 500m 경기에는 이규혁(서울시청), 이강석(의정부시청), 김태운(한국체대)도 출전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 기를 들고 입장한 만형 이규혁은 이날 경기에 나선으로써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동·하계를 통틀어 가장 많은 여섯 번째 올림픽을 치르게 된다.

스피드스케이팅에 앞서 오후 6시 45분부터 아이스버스 스케이팅 팰리스에서는 쇼트트랙 전사들이 출격한다. 신다운(서울시청), 이한빈(성남시청), 박세연(단국대)이 남자 1500m 경기에서 명예회복을 노린다. 남자 쇼

트트랙 대표팀은 올림픽을 앞두고 월드컵에서 부진해 우려를 낳았다.

안팎에서 3관왕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쏟아진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차세대 간판 심석희(서울 세화여고)는 오후 7시 27분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박승희(화성시청), 김아람(전주제일고)과 함께 500m 예선에 나서 다관왕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날 밤 8시 35분에는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준결승도 열린다. 심석희를 비롯해 박승희·조해리(경기 고양시청)·공상정(춘천 유봉여고)이 출전한다.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모굴의 '신성' 최재우(한국체대)도 첫 올림픽 무대에 오른다. 최재우는 지난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스키 선수로는 가장 높은 5위에 오른 기대주다. 밤 11시 45분 산기 슬라이딩센터에서는 한국 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여자 루지 1인승 성은영(용인대)의 경기가 열린다. /연합뉴스

▶루지 2인승 한국 국가대표 박진용(앞)과 조정명이 지난 8일 러시아 소치 산기 슬라이딩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박진용·조정명은 12일 밤 11시 15분 같은 장소에서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Korea

SINCE 1989

이태리 가구 전문점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1899-0240